

수능 영어 등급 향상을 위한 학습 대책

1. 예습 / 복습을 생활화하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업중의 집중력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선 배운 내용에 대한 예습 / 복습은 필수이다. 예습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복습은 배운 내용에 대한 기억력을 높여준다. 예/복습 없이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될 것 같니? You think you're that smart?

2. 영어도 하나의 언어, 언어는 듣기 말하기가 기본이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 말을 배우는 과정은, 우선 듣고, 따라 읽으면서 시작하는 거다. 명심하라. “모방”과 “반복”이 영어학습의 첫 번째 라는 것을.

영어듣기 시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열심히 듣고, 따라 읽으면서 복습하라. 문자 형태로 죽 어있던 영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덩어 리로 보게 된다. 너의 영어에 대한 “감”이 좋아진다. 영어에 대한 “SENSE”! 갖고 싶지 않나?

3. 나만의 영어노트 / 단어장을 만들어라.

노트 정리를 귀찮아하면 어떤 과목이든 성공하기 힘들다. 수업시간에 듣고 이해했다고 자기 지식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선생님의 지식이지 네 것이 아니다. 노트에 옮겨 쓰면 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만 너희들의 실력이 UPGRADE 됨을 명심하라. 해석 이 어려웠던 까다로운 문장들, 노트에 별도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다시 해석해보라. 친구들과 함께 보는 단어장 말고, 시험에서 자주 봤지만 계속 뜻이 생각나지 않았던 단어들만 모아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겠는가?

4. 글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정리하자.

선택지에 의존해서 문제의 답을 맞추는 데에만 급급한 학습방법으로는 실력향상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어떤 글이든 읽고 나면 ① 글의 소재가 뭐지? ② 주제문이 어디 있지? ③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지문 옆에 메모해 두자. 그렇게 글의 내용이 머리 속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하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은 평소 영어공부 할 때, 문제 의 선택지를 보지 않고, 주관식으로 문제의 답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후에 자신의 생각과 비 슷한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는다고 한다.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겠지?

5.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을 숙지하자.

수능 문제에 어떤 유형이 몇 문항씩 출제 되는지 알고 있는가? 각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답의 힌트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대표적인 함정/오답 유형은 어떤 것 들인지에 대한 “원칙”이 머리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 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는 내용들을 잘 숙 지하여, 자기만의 공략법을 완성해보자.

6. 사전을 활용하자.

영어공부의 핵심은 어휘력이다. 수준 높은 어휘력을 갖기 위해선 사전을 자주 뒤적여야 한다. 단어 찾기 귀찮은 사람은 영어공부 하지 마라. 전자사전이면 더 좋다. 전자사전은 발음도 읽 어준다.(듣기평가를 위해서 발음기호도 외우고 단어의 발음도 제대로 알아) 사전에서 take, get, make 등의 초등 수준의 어휘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아마 놀랄 게다.

7. 선생님의 핸드아웃을 잘 정리하자.

교재에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프린트물을 자주 배부한다. 한 번 보 고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금물이다.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축적된 자료들 잘 관리하자. 결국 공부하는 배우는 내용은 다 같은데, 그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관리 하느냐에 따라 1등급부터 5-6등급까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8. 끊어읽기 연습을 하라.

영어문장의 의미를 구분 지어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끊어 읽고, 성분 파 악하고, 수식관계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하자. 평소에도 많이 해두면 시험장에선 굳이 표시하면 서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글의 의미단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9. 해석은 영어 어순으로 하라.

해설지를 보면 위의 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게다.

사회과학, 특히 1930년대와 이후의 인류학의 성장과 함께, ‘야만적인’ 그리고 ‘원시적인’과 같은 말들은, 한 때 이러한 꼬리표를 달았던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형태의 인 류를 나타낸다는 생각과 더불어, 문화 연구의 어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사회과학의 성장과 함께 / 그리고 특히 1930년대와 이후의 인류학 (의 성장과 함께) / ‘야만적인’ 그리고 ‘원시적인’과 같은 말들은 / 사라지기 시작했다 / 문화연구의 어휘로부터 / 생각과 함께 / 한 때 이러한 꼬리표를 달았던 사람들이 / 생물학적으로 덜 진화된 형태 의 인류를 나타낸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말로 된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이다. 영어 어순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라.

10. 지문을 저장해 두고 함께 단어도 정리하라.

어휘, 어법, 독해는 별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이 세가지가 너희들의 영어실력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기울면 쓰러지게 된다. 따라서, 독해공부 하면서 구문도 보고, 구문 보면서 어휘도 볼 줄 아는 “Multi-학습법”이 필요하다. 글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항상 정리하도록 하자.

소재 : 점 (Mole)
주제 : 점이 사람의 성격을 말해준다.
어휘 :
mole 점 vary 다양하게하다.다르다 ancient 고대의

어휘 학습법

어휘는 영어학습의 시작이자 끝이다. 어휘의 의미와 그 품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문장구조 파악 / 내용파악은 불가능하다. 어휘력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1. 지문 속에서 쓰인 단어를 기억하자.

글의 주제와 내용을 생각하며, 문맥 속에서 의미를 암기하는 것이 그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단어장에 써놓은 개별 단어들이 “죽은 생선”이라면, 지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살아서 펴떡거리는 “활어”인 셈이다. 어떤 게 더 맛있을까?
더불어, 특히 듣기평가에서의 단어는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자.

2. 매일매일, 읽고, 쓰면서 공부한다.

어휘공부는 자습시간 일부를 배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 쉬는 시간, 식사시간 후, 등하교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눈으로만 단어 외우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영어는 단어의 형태와 그 발음이 굉장히 달라서, 읽으면서 쓰면서 외우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뻔히 아는 단어인데, 듣기시험에 나오면 못 듣게 된다.

3. 어근을 알아.

지하철이 왜 subway 일까? sub- 라는 접두어가 “아래쪽의”라는 의미를 가진 걸 안다면 다음의 어려운 단어들도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지?

submarine (아래+바다의) n. 잠수함

subordinate (아래+order 순서) a. 하급자의 n. 부하

subcontract (아래+계약) n.v. 하청계약 (하다)

submerge (아래+침몰하다) v. 잠기게 하다, 가리다

100여개 정도의 어근 형태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휘 공부에 훨씬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4. 다른 단어를 도우미로 활용하라.

다음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보자.

resolution / revolution / evolution

혼동어휘를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저 단어들 앞에 말을 붙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Industrial revolution (산업 혁명)

Darwin's theory of evolution (다윈의 진화론)

각 단어의 의미가 머리 속에 명확히 남는다.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5. 동의어/반의어를 정복하자.

시험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어휘는 동의어, 반의어이다. 많이 알수록 글의 주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빈 칸에 들어갈 말도 눈에 잘 보이게 된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정리해 주시는 동의어/반의어들 꼼꼼히 잘 정리해 두고 열심히 외우자. 연습 삼아 아래에 나열된 한 쌍의 단어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 (정답은 아래에)

Q. 다음 단어들은 서로 동의어인가? 반의어인가?

- | | |
|----------------------------|--------------------------------|
| 1. equal / identical | 2. relative / absolute |
| 3. patience / perseverance | 4. concentration / distraction |
| 5. equilibrium / symmetry | 6. chaos / cosmos |

(정답 - 동/반/동/반/동/반)

영어 독해의 process

- ① 소재 파악
- ② 주제 파악 및 주제문 표시
- ③ 정답 확인
- ④ 내용 확인 (해설지 참조)
- ⑤ 주제문과 어휘 정리
- ⑥ 내용 이해 후 다시 정독

문법 학습법

우리말엔 “조사” 라는 소중한 기능어가 있다.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참 편하다. 하지만 영어는 어떤가? 단어의 기능을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 문장에서 “Tom” 을 우리말로 해석해보자.

Tom likes Jane. (Tom은)
Jane likes Tom. (Tom을)
Jane gave Tom the book. (Tom에게)
Jane calls the boy Tom. (Tom이라고)

영어와 우리말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문법 고수가 되기 위한 원칙을 알아보자.

1. 각 품사와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전치사 뒤엔 뭐가 오나? 조동사 뒤엔 뭐가 오나? 접속사의 기능은?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기본적인 어법개념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완벽히 숙지하고, 관련된 간단한 예문도 한 두개 외워 두자. 모르면서 아는 척 말고.

2. 문장의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기본 문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문장에서 동사를 정확히 파악해 낼 수 있는가? 영어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들이 여럿이 있어, 동사 찾기가 쉽지 않은 언어이다. 조동사, 수동태, 진행형, 현재/과거완료 등의 다양한 동사형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생략된 동사가 보이는가?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건 왜 그런가?

3. 문법도 그 기본은 어휘력이다.

단어의 뜻과 품사를 정확히 모르면 문법 공부 소용없다. 이 단어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해매고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 게다가 영어는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배우기 힘든 언어이다. 단어의 의미와 그 품사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문장 구조 파악이 가능함을 명심하라. 다음의 예를 통해 같은 동사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이해하자.

I got there right on time. (1형식 - 도착하다)
I got tired after the game. (2형식 - 되다)
I got a job offer at Samsung. (3형식 - 얻다)
I got you a present. (4형식 - 갖다 주다)
I got the work finished today. (5형식 - 시키다)

4.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을 찾아라.

수식어구를 속아내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대등한 관계로 여러 단어들을 나열하는 **등위접속사** and, or, but 의 쓰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전치사 + (수식어) + 명사”의 “**전명구**”를 묶어내고 그 기능을 파악했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길어지는 부분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게 됨을 명심하라.

5. 암기하고 있는 예문은 몇 개나 되나?

선생님들이 문법 설명할 때 써주시는 짤막한 예문들.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의 원천 이란다. 절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문장은 꼭 손으로 써보고, 읽어서 외우려고 노력해야 자기 것이 된다. “Make 는 사역동사로 쓸 수 있어서 뒤에 목적어와 원형 부정사가 온다...” 라는 것 보다... “Don't make me cry.” 라고 깔끔하게 외워보자. “동사+부사 속어에선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반드시 가운데 와야 한다...” 라는 것보다 “Turn off the light. Turn it off. ” 라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영어가 쉬워지는 길임을 명심하자.

영어듣기 학습법

영어듣기는 독해나 문법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태도는 안정적으로 1등급 전후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요동치는 중학위권에게는 아주 위험한 학습태도이다. 생각해보라. 듣기가 영어시험의 1/3을 차지한다! 수능영어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인 영어듣기 점수가 필수라고 하겠다. 영어듣기를 기본 중의 다 맞춰야, 이어지는 독해문제도 편한 마음으로 술술 해결되지 않을까나.

1. 매일 한다.

우리가 매일 쓰고 듣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구사할 수 있듯이, 영어도 매일 우리들의 귀에 노출시켜야 한다. 아침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저녁 자습시간, 혹은 귀가시간에 20-30분 정도를 더 투자해서, 영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자.

2. 책은 한 권만 마스터 해도 된다.

한 우물만 파라. 이 책, 저 책 손대다 포기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어떤 교재든 한권을 골라서, ①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중요어휘를 다 외우고, ② 중요 표현들은 한번씩은 다 읽어보고, 외우고, ③ 대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수능영어뿐 아니라 영어에 대한 평생고민이 다 해결된다.

3. 듣기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져라.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몇 문제씩 수능에 나오는 지 알아두어야. 그리고 이런 유형에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준비되어 있는가? 영어듣기는 기회가 단 한 번 뿐이다. 독해는 읽다가 막히면 다시 읽으면 되지만, 듣기에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하라. 따라서, 듣기가 시작되기 전에, 1번부터 17번 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빠르게 읽어두자.

4. 듣기어휘/표현을 암기하라.

듣기도 어휘력이 생명이다. 이 문제를 풀어보자. 어디에서 하는 말인가?

I'd like this prescription filled.

prescription이 “처방전” 이라는 걸 알아야, 이 말이 약국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겠다. 영어는 형태와 발음이 상당히 다른 언어라는 걸 명심하고 모든 단어의 발음을 따라 읽고, 너의 입술과 혀가 그 발음을 기억하게 하라.

아래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가?

| | |
|----------------------------|--------------|
| Can you give me a hand? | (도와줘) |
| Hey, it's been ages! | (오랜만이야) |
| Let's go grab a bite. | (뭐 먹자) |
| How many in your party? | (일행이 몇 분이죠?) |
| Keep your fingers crossed! | (행운을 빌어줘!) |
| Can I take a rain check? | (다음에 할게) |

5. 복습이 생명이다.

한 번 풀어본 문제는 다시 안 듣는 친구들이 있다. 풀어본 문제를 다시 왜 듣냐고? 명심하라.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 점검”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원하는 “실력 향상”을 위해선 2번, 3번, 4번씩 듣는 방법 뿐이다. 다음의 순서를 잘 따라서 실천하라.

- ①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고, 채점한다.
- ② 해설 스크립트를 보면서 다시 듣는다.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표현이 어려웠는지 꼭 확인한다.
- ③ 핵심 표현과 어휘를 정리한다. 분명 아는 표현인데, 문제에서 못들은 게 있다면, 집중적으로 정리하라.
- ④ 스크립트 없이 1번부터 다시 들어보자. 이번엔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어보자.
- ⑤ 즐기면서 영어듣기를 해보자. 두 사람의 대화가 머리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재생되는가?

6. Dictation보다 Shadow Speaking이 낫다.

받아쓰기도 도움은 된다. 하지만 그 비효율을 생각해보라. 대신, **자꾸 따라 읽어봐라**. 원래 언어를 배울 땐, 듣고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다. 그게 기본이다. 그걸 잘 해야, 독해도 잘하고, 문법도 잘 하게 된다. 영어에 대한 감이 좋아진다.

세 번째 들을 땐 스크립트 없이 읽는 연습을 해보라. 듣는 내용을 바로 따라서 입으로 중얼거리려 본다. Shadow Speaking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영어 고수가 된다.